

보도설명자료 (19. 10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백화점 업계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참여할 계획

(한국경제 10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백화점 업계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
- ◇ 10월 25일 한국경제 <세일 없는' 코리아세일페스타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공정위, 뒤늦게 백화점 참여 독려 나섰지만 ... 백화점 “참여는 해도 할인은 없다”
- 행사의 핵심 주체인 롯데·현대·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모두 세일을 하지 않기로 함
- 백화점들은 적자를 감내하고 세일행사를 할 수 없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빠지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통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·제조 업계는 금년 상반기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으며,
- 백화점 업계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

- 백화점 업계는 그간 금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으며,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각 업체별로 다양한 이벤트와 세일행사를 진행할 계획임
- 각 백화점 별로 계획 중인 세일행사의 품목과 할인율, 이벤트 등 세부 내용은 업체별 영업 전략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 및 홍보할 예정임
- 업계는 업체별로 분산되어 실시하는 세일행사 보다 전체 업계가 다함께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세일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,
-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라인쇼핑 업체를 포함한 유통·제조 업계는 금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거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호성 과장(044-203-4380)
최혜진 사무관(044-203-4384)